

## <클린 코더 정오표>

(2016. 8. 5 기준)

### [뒤표지]

무척이나 신경 쓰며,

->

무척이나 주의를 기울이며,

### [p.4: 아래에서 2행]

짐의 태도인데 열심히 따라하려 애쓰는 중이다.

->

짐의 태도였다. 그런 태도야말로 내가 열렬히 추구하는 것이다.

### [p.6: 5행]

이 책은 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모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았다.

->

이 책은 단순히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아니다. 그 이상이다.

### [p.7: 아래에서 7행]

가망고객

->

잠재고객

### [p.8: 3행]

압력을 가해야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."고 지적했다.

->

압력을 가해야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."고 떠들고 다녔다.

### [p.8: 5행]

가망고객

->

잠재고객

### [p.11: 6행]

한 자씩 실례를

->

한 글자씩 실례를

### [p.15: 각주 1]

두 가지 규율

->

둘의 규율

**[p.16: 10행]**

운영자가 됐다. 다른 누구도 근접할 수 없었다.

->

운영자가 됐다. 다른 사람은 시스템 근처에도 못 왔다.

**[p.21: 10행]**

1000년 가까이 지났지만 폭발의

->

오래 전 일어난 이 폭발의

**[p.106: 아래에서 4행]**

살피다 보면 자연스레 비법을 깨달을 것이다.

->

살피다 보면 자연스레 몇 가지 요령을 얻게 될 것이다.

**[p.108: 아래에서 5행]**

이 코드 덩어리를 새로 만들 시간은

->

이 코드 덩어리를 다시 만들 시간은

**[p.121 아래에서 3행]**

개발자들은 지름길로만 가려

->

개발자들은 손쉬운 길로만 가려

**[p.138: 2행]**

새 밀레니엄(200년)

->

새 밀레니엄(2000년)

**[p. 139: 아래에서 4행]**

$100 \times 25 = 6.4 \times 10^{22}$

->

$100 \times 25 = 6.4 \times 10^{22}$

**[p.144: 3행]**

<http://thecleancoder.blogspot.kr/2010/10/craftsman-62-darkpath.html>

->

<http://thecleancoder.blogspot.kr/2010/10/craftsman-62-dark-path.html>

**[p.154: 10행]**

자정중

->

자정

**[p.155: 3행]**

생길 때마다 그런 모든 로그 파일을 통해

->

생길 때마다 백업한 로그 파일을 사용해

**[p.155: 5행]**

자정중

->

자정

**[p.156: 4행]**

샘: "매일로 하자."

->

샘: "매일 하자."

**[p.158: 5행]**

시스템 시작에 이미 20초가 걸리고도 늘어나고 있어.

->

이미 시스템 시작에 20초나 걸리는데다 그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.

**[p.158: 아래에서 7행]**

FitNessestest

->

FitNesse

**[p.161: 2행]**

제품의 기능이 절반만 동작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.

->

제품의 기능이 절반만 동작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다.

**[p.162: 아래에서 11행]**

모두가 준비되는 반복 주기의 중간 지점까지는 매일 더 많은 부분을 완성해야 한다.

->

매일 더 많은 인수 테스트를 완성해서 반복주기의 중간 지점에는 모든 인수 테스트가 준비되어야 한다.

**[p.167: 아래에서 8행]**

각 버튼에 있는 고유 ID가 사용하면 법이다.

->

각 버튼이 보통 하나씩 갖고 있는 고유 ID를 사용하는 방법이다.

**[p.174: 그림 8.1]**

"수동"의 위치를 오른쪽 아래로 (삼각형의 구석)

**[p.186: 마지막 행~p.187: 첫 행]**

더 효과적으로 쓰쓰기도 한다는

->

더 효과적으로 쓰기도 한다는

**[p.195: 아래에서 4행]**

그 정도의 자세한 일들은 선명하게

->

그 정도의 상세한 일들은 선명하게

**[p.204: 각주 6]**

배리 보험(Barry W. Boehm),

->

Barry W. Boehm,

**[p.210: 아래에서 9행]**

끝내는 이익을 내려는 회사의 의도에 따라

->

끝내는 이익을 내려는 회사의 뜻에 따라

**[p.210: 아래에서 2행]**

동료의 모습을 풍자한 낙서를

->

동료의 모습을 비꼬는 낙서를

**[p.222: 아래에서 13행, 10행, 2행]**

스텐오류 -> 스텐버그

**[p.235: 1행]**

CS(컴퓨터과학자)

->

CS(컴퓨터과학과)

**[p.236: 11행]**

물론, 그 경험은

->

물론, 이 경험은

면담

->

면접

가장 심각하게 실망한 부분이다.

->

가장 실망한 극단적인 하나의 예다.

**[p.236: 12행]**

하지만 나는 그런 학생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다. 그들 중 거의 모두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스스로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대학과 상관없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.

->

더불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다. 그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입학 전에 혼자서 프로그램을 공부했고 입학 후에도 대학과 상관없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다.

**[p.236: 아래에서 6행]**

그렇다고 나를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. 대학에서의 교육은 훌륭한 것으로 생각한다. 나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여 학위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긴다는 점이다.

->

그렇다고 나를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. 대학 교육도 훌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. 다만 대학이란 시스템을 꿈틀대며 빠져나오는 동안 졸업장 말고는 얻은 게 없는 경우도 봤다

**[p.237: 아래에서 10행]**

플립플롭에 돌출되어 있는 작은 핀에 있는 조그만 튜브(종유관의 짧은 부분)를 눌러서 본체에 프로그래밍을 한다. 그 매뉴얼은 각 튜브의 어디를 눌러야 하는 정확히 알려주었지만 그 튜브들이 무

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난처했다!

->

플립플롭에 돌출되어 있는 작은 핀에다 조그만 튜브(음료수 빨대를 짧게 자른 부분)를 끼워서 눌러 기계를 프로그래밍 한다. 그 매뉴얼은 각 튜브를 어디에 끼워 눌러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주었지만 그 튜브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난처했다!

**[p.237: 아래에서 6행]**

최대한 로우레벨에서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냈다.

->

최대한 로우레벨에서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내기로 마음 먹었다.

**[p.237: 아래에서 4행]**

그 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을

->

그 방법을 알려주는 또 다른 매뉴얼을

**[p.238: 첫 행]**

제휴 및 배포 법령

->

결합법칙과 분배법칙

**[p.239: 2행]**

애들이 책상 톱 크기의

->

애들이 선반 기계 톱(table saw) 크기의

**[p.244: 아래에서 3행]**

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의 빌드를 맡기는

->

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의 구축을 맡기는

**[p.245: 5~6행]**

만연한 있는

->

만연한

**[p.247: 아래에서 11행]**

오늘 하는 일과 나의 이상적인 견습기간 프로그램 간의 차이는

->

오늘날 업계에서 벌어지는 일과 이상적인 견습기간 프로그램 간의 차이는

**[p.250: 10행]**

테이프를 로드하고 10인치 블랭크를 또 다른

->

테이프를 로드하고 10인치 빈 테이프를 또 다른

**[p.250: 11행]**

그런 다음 스크래치 테이프에

->

그런 다음 빈 테이프에

**[p.251: 아래에서 9행]**

그래서 보통 보드가 남아도 사용하지

->

그래서 보통 보드는 불필요해서 사용하지

**[p.252: 9행]**

특징

->

기능

**[p.252: 아래에서 3행]**

방법은 그들을 연속화하는 것이다.

->

방법은 한 줄로 줄 세우는 것이다

**[p.253: 2행]**

한 파일을 잠금한 다음 휴가를

->

한 파일을 잠근 다음 휴가를

**[p.253: 3행]**

비록 하루 이틀 정도 파일을 보관한다 해도,

->

파일을 차지한 시간이 비록 하루 이틀 뿐이라 해도,

**[p.253: 8행]**

자동화된 테스트와 지속적 통합은 이 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프로세스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

많이 알아볼 것이다.

->

자동화된 테스트와 지속적 통합의 역할에 대해 할 말이 많으므로 이 장의 뒷부분에서 이들 프로세스를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

**[p.254: 4행]**

그림 A-1

->

그림 A.1

**[p.255: 그림 A.1]**

FITNESSE

->

FitNesse

**[p.256: 그림 A.2]**

FITNESSE

->

FitNesse

**[p.258: 13행]**

이 틀은 수년간에 걸쳐서

->

수년간에 걸쳐서

**[p.258: 아래에서 7행]**

특징

->

기능

**[p.259: 아래에서 3행]**

엄격한 구조에는 쓰지

->

엄격한 구조를 쓰지

**[p.260: 9행]**

신규 과제, 특징들과

->

신규 과제, 기능과

**[p.262: 6행]**

그래픽 녹색 바이든

->

그래픽 녹색 막대든

**[p.262: 7행]**

반드시 빠르고 분명하게 모든 테스트의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 다중 리포트를 판독하거나, 심한 경우 테스트 통과 여부를 알려주는 두 개 파일들의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면,

->

반드시 빠르고 분명하게 모든 테스트의 합격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. 여러 줄의 보고서를 읽어야 하거나, 심한 경우 테스트 통과여부를 알려주는 두 개 파일들의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면,

**[p.262: 아래에서 2행]**

묶음을 걸고

->

테스트 묶음을 실행준비하고

**[p.263: 3행]**

이해할 수 있는 언어 내에 구체화하도록

->

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세하도록

**[p.263: 6행, 7행, 10행]**

완료됨

->

완료

**[p.263: 11행]**

FITNESSE

->

FitNesse

**[p.267: 3행, 주석 3]**

0 X FF

->

0xFF